

동맥경화증

최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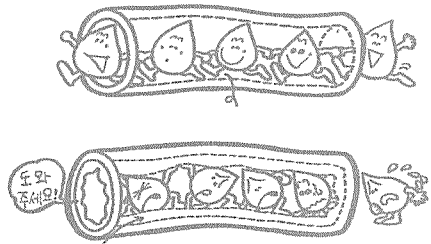
동맥경화증이란 문자 그대로 동맥이 굳어지는 병이다.

혈관의 생김새를 보면 안쪽으로는 실비단 같은 내막(内膜)이 있고 바깥쪽으로는 외막(外膜)이 있는데 이 내막과 외막 사이에는 두꺼운 근육으로 된 중막(中膜)이 있다. 이 중막에 여러가지 물질이 오랜동안 침착되면 내막은 혈관의 내강(内腔) 쪽으로 부풀어 오르는데 이것이 최초의 동맥경화 현상이다.

이때 중막에 침착되는 여러가지 물질중에는 콜레스테롤이란 것이 있다. 콜레스테롤은 동물성 지방의 일종으로 엷처럼 끈끈하고 잘 엉겨붙으며 기름때와 같이 혈관 안쪽에 달라 붙는다. 이것이 계속해서 끼면 내막은 자꾸 부풀어 혈관은 좁아지고, 처음엔 끈끈하던 기름때가 갈수록 단단히 굳고 칼슘이 쌓여 마침내 뼈처럼 딱딱하게 된다. 그리고 부풀어 오르던 내막은 터져 버리고 혈관의 내벽이 헐기 시작한다.

혈관내벽에 상처가 나니까 이번에는 이 상처에 혈액이 달라붙어 응고하고 이로 인하여 혈관속에는 작은 핏덩어리들이 생겨 혈액이 굳어지는 혈전(血栓)을 일으킨다.

이 혈전으로 혈관은 아주 폐색(閉塞)되



든가 좁아져서 피가 잘 흐르지 못하게 되는데 이쯤되면 동맥경화는 중증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신체동맥의 여러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뇌나 심장이나 콩팥의 동맥에 발생하면 생명에 위험을 준다.

동맥경화증의 원인

동맥경화는 여러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되고 진행되므로 동맥경화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위험인자를 파악하여 미리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상검사- 고지혈증에 대한 일상검사 항목

| | | |
|---------|---|--|
| 뇨 검사 | • 뇨소견 | 신증후군, 다발성 골수증, 당뇨병성 신증 등의 신장에 의한 2차성 고지혈증의 경우에는 뇨단백, 뇨당 등이 양성 소견을 보인다. |
| 혈액검사 | • WBC • RBC • Hb • Ht | 여러종류의 2차성 고지혈증에서는 빈혈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혈액검사는 필수적이다. 다만 원발성 빈혈에서는 고지혈증을 초래하지 않고 오히려 저 cholesterol 혈증인 경우가 많다. |
| 생 화학 검사 | • 총단백 • Albumin • 단백분획 | 2차성 고지혈증에서는 총단백, albumin, 단백분획에 이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
| | • 총 Cholesterol • TG • HDL-Cholesterol | 총 cholesterol(TC), 중성지방(TG) 및 HDL-cholesterol의 3가지를 조합하여 측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일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TC가 220mg/dl 이상, TG 150mg/dl 이상, HDL cholesterol 40mg/dl 미만을 고지혈증이라 하며 미국 NIH에서는 TC 240mg/dl 이상 또는 LDL cholesterol 150mg/dl 이상을 고지혈증이라 하고 있다. |
| | • 혈당(공복시) | 당뇨병, 비만, Cushing증후군 등에서 고지혈증과 고혈당이 합병되어 있는 예가 적지 않다. |
| | • GOT • GPT • ALP • r-GTP • Amylase | 간장애에 의한 고지혈증(특히 알콜성 간장애)이나 취장 질환(알콜성 취장염)에서 고지혈증을 나타내는 수가 많다. 따라서 적어도 GOT, GPT, ALP, r-GTP, amylase의 기본적인 효소검사가 필요하다. |
| 생리검사 | • 심전도 | 필요에 따라 검사한다. |

위험인자

1. 정신적 또는 신체적 스트레스
 2. 고지혈증(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
 3. 고혈압
 4. 빈혈증
 5. 당뇨병
 6. 흡연 및 과음
 7. 운동부족
 8. 유전성 체질(가족중에 조기 동맥경화증이 있는 경우)
- * 특히 고지혈증, 고혈압, 과도한 흡연은 가장 중요한 3대 위험인자이다. **Z**
- 〈건협 서울지부 부속의원 관리의사〉